



●경남 함안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이경화 간사, 최일환 감사, 조양제 회원, 함연수 지부장, 진병훈 부지부장, 안광준 회원, 김종신 총무, 한기학 군의원

2002년 우수지부

## 분뇨수거 운반차량 사업으로 도움 주는 경남 함안지부

취재: 정재은

본회는 조직적인 회원 및 회비 관리와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 분뇨수거차량 사업 등으로 회원들이 양돈장을 경영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경남 함안지부(함연수 지부장, 50세)를 2002년 우수지부로 선정하였다.

함안지부는 양돈업의 가장 큰 문제인 분뇨처리를 위해 분뇨수거 운반차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 회원들이 분뇨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때보다 비용절감이 이루어져 양돈장을 경영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있다.

우수지부로 선정된 함안지부는 깨끗한 경영과 최대한의 보조로 회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수해나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회원간의 결속력을 통해 활발한 정보 교환은 물론, 서로 도우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 등의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부행사 개최시 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노력하는 단합된 지부이다.

## 분뇨수거 차량 운행으로 분 뇨문제 해결

함안지부에서는 양돈농가의 가장 골칫거리인 분뇨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 돼지를 키우는데 좋은 여건을 회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분뇨수거 운반차량 1대(17톤 수거 가능)를 확보해 놓고 전 회원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1개월 사업비가 2,800만 정도이며, 하수종말처리장과 해양투기 업체와 계약을 맺고 100% 분뇨를 해결하고 있다. 보통 분뇨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톤당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 14,080원의 처리비용이



▲조직적인 회원 및 회비 관리와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 분뇨수거차량 사업 등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함안지부를 2002년 우수지부로 선정하였다. 좌측부터 이경화 간사, 한기학 군의원, 함연수 지부장, 김종신 총무

된다. 그러나 함안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분뇨수거 운반차량 사업으로 공동 처리하게 되면 톤당 9,0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톤당 5,000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원가로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회원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처리비용 및 차량운행비 등을 지급하고 남는 이익으로 지부 운영과 회원 보조를 하고 있다.

함연수 지부장은 “월 300톤의 분뇨가 발생한 경우 분뇨수거 운반차량 사업으로 150만원의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며 “양돈경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분뇨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회원들이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지부는 또 다른 분뇨처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액비화 사업을 통한 분뇨 해결을 위해 군에 200톤 짜리 액비탱크 4개 설립을 올해 신청하였다.

## 단결하여 함안지역 양돈농가를 이끌어가는 함안지부

함안지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996년 1월 19일에 설립되었다. 본래 마산지부에 마산,



▲함안지부는 현재 분뇨수거 운반차량 1대(17톤 수거 가능)를 확보해 놓고 전 회원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함안지부 함연수 지부장



▲함연수 지부장(좌측)과 김종신 총무를 비롯한 13명의 임원 및 회원들이 단결하여 함안지역의 양돈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창원, 진해, 함안 4개 지역의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부 함안지역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분가하게 된 것이다.

역사가 오래되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제4대 함연수 지부장을 중심으로 안태익, 진병훈 부지부장, 김종신 총무, 차상식, 최일환 감사, 한기학 군의원(전 총무)과 운영위원들을 포함한 총 13명의 임원 및 회원들이 단결하여 함안지역의 양돈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곳 함안지역은 98농가가 9만7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42명이 지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 대부분이 전업규모의 농가로 5만5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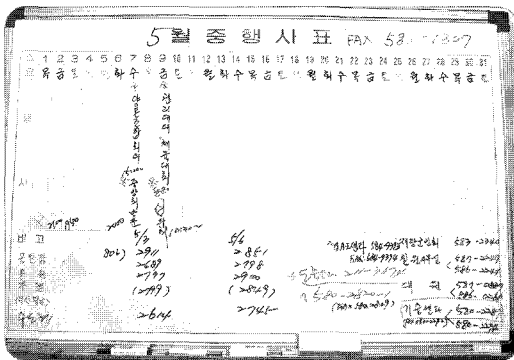
함안지부는 양돈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인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어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있다. 또한 분뇨수거 차량 운행으로 얻어진 이익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인 회원들을 돕고 보조한다.

함 지부장은 “회원들은 큰 부담감 없이 양돈을 해 나갈 수 있어 함안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김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연수 지부장과 김종신 총무, 한기학 군의원 등을 비롯한 전 임원은 회원들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 축산과 등의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지부는 질병 발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7일 월례회의를 개최하며, 지부운영은 월 3만원의 회비와 분뇨수거 운반차량 사업의 수익금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 관·군 등과 협조아래 방역활동 전개

지난 2002년 5월 구제역 발생 당시 함안지부는 함안군 축산과와 연계하여 방역단을 구



▲함안지부는 월중 행사표를 작성해 놓고 있으며, 질병 발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7일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함안지부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는 방역포스터, 분만달력,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포스터.

성하고, 회원들이 교대로 초소 근무를 함으로써 차단방역을 하였다.

이번 3월부터 시작된 돼지콜레라의 경우, 함안지역에서 11개의 농장에 발생하여 1만2천여두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원들은 각자 소독활동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갔다.

한편, 함안군 축산과에서는 돼지콜레라 상황실을 마련해 놓고 박재영, 박진석 계장 등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살처분 및 백신접종 관리를 하고 있다.

군부대 역시 살처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하였다.

함연수 지부장과 한기학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송영경 소장과 함께 지난 5월 7일 군부대를 방문해 노고를 격려하고 돼지고기와 음료수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 수해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어려운 농가 보조활동 및 시식회 행사 등 개최

2002년 8월의 수해로 회원 농가인 강변농장(노주호 대표, 3,500두 규모)이 큰 피해를 입었다.

회원들 모두는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사후 처리를 해 나갔고, 피해농가 위로 차원에서 회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110만원을 전달하는 등 함안지부는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수재의연금도 마련해



▲2002년 8월의 수해로 회원 농가인 강변농장(노주호 대표, 3,500두 규모)이 큰 피해를 입었다. 회원들 모두는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사후 처리를 해 나갔고, 피해농가 위로 차원에서 회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110만원을 전달하였다.



▲함안은 이번에 11곳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이중 진병화씨, 김중신 총무, 김영실씨 3명의 회원 농장이 포함되었다. 지부는 이들을 위해 1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였다. 사진은 함연수 지부장(좌측)과 진병화 회원



▲2001년 10월 27일, 28일 아라제 행사 때, 군민 5,000명을 대상으로 공설운동장에서 수출부위 무료시식회를 개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함안지부 사무실 내부 모습. 함연수 지부장(좌측)과 이경화 간사

50만원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함안은 이번엔 11곳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이중 진병화씨, 김종신 총무, 김영실씨 3명의 회원 농장이 포함되었다. 지부는 이들을 위해 각각 1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으며, 살처분 보상이나 입식자금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편, 지부는 2001년 10월 27일, 28일 아라제 행사 때, 군민 5,000명을 대상으로 공설운동장에서 수출부위 무료시식회를 개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 적정시기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물품 제공

함안지부는 지속적인 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회원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적정시기에 기자재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다.

겨울이 되면 보온등과 같은 기자재를 회원 농가에 조금 더 싼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구와 같은 소모품이나 생균제를 한

꺼번에 구매하기도 한다.

2002년 12월에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소화기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함연수 지부장은 “지난 3월에 홍순범 회원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소화기를 구비해 놓았기에 조기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사업 및 제도 개선으로 유대 강화해야

함연수 지부장은 “각자 농장 일이 많고 바쁘겠지만 지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영비 절감이 가능해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분뇨수거 운반차량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 생산비 이하의 돈가로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 중단 요구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함 지부장은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제도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협회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아져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함 지부장은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큰 부담이나 어려움 없이 양돈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또한 양돈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됨으로써 전 양돈인이 공동체 의식 아래 단합하고 협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돈**